

근대일본의 '어린이' 관의 형성*

박 훈**

- I. 머리말
- II. 서양에서 '어린이'의 탄생과 어린이관의 변천
- III. 에도시대의 어린이와 어린이관
- IV. 근대일본의 어린이관의 형성과 '童心'의 탄생
- V. 맺음말

우리가 초역사적인 불변의 개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 중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들이다. 민족이나 가족이 그렇듯, 어린이도 그 중 하나이다. '순진한 어린이' '순수한 동심' 같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의식들은 실은 특정시기에 형성된 역사적인 것이다. 유럽에서 '작은 어른'으로 취급되어 어른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던 어린이가 점점 무지하고 순진무구한 존재로 간주되어 어른과 명확히 구별되고, 학교 및 가정에 격리되게 되어가는 것은 17-18 세기에 걸쳐서이다. 이제 어린이라는 인생의 특정한 단계(stage)가 설정되었고, 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학, 음악, 장난감 등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가족을 그린 그림에서도 어린이들은 그 중심에 존재하며, 항상 보호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묘사되게 된다.

에도시대의 일본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그들의 사회적 위치는 근대 이후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러나 메이지기에 들어서 학제의 실시, 가정과 국가의 대면 등으로 인해 어린이라는 라이프 스타이지가 분명히 인식되게 되고, 어른과는 다른 존재로서의 어린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메이지기 이후 어린이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어린이를 미래에 일본이라는 국민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고, 또 하나는 어린이를 어른들의 속물적인 세계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순진무구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다. 메이지 중기까지는 전자의 시각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나

* 이 연구는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지원사업의 도움으로 수행되었음.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메이지 말기에서 다이쇼기에 걸쳐 서양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후자의 시각이 확산되어 이후 상호긴장하면서 병립하게 된다.

특히 다이쇼기에는 『아카이토리』라는 아동잡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동저널리즘이 활성화되어 ‘동화’ ‘동심’이라는 말이 탄생하였고, ‘순진한 어린이’ ‘순수한 동심’이라는 어린이관이 성립, 유포되었다.

주제어: 어린이, 아동, 동심, 학교, 교육, 오카와 미메이

1. 머리말

우리가 현재 자명한 것처럼 생각하는 개념들 중에는 근대에 들어 탄생하거나 재창조된 것들이 적지 않다. 즉 초역사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개념들 중에, 실은 근대에 고유한, 역사적인 개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을 마치 태고부터 줄곧 있어온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과거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관련문제에 대한 이해도 크게 그르칠 위험이 있다. 종래 역사학계에서 사용해온 ‘민족’ 개념이 그 현저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또는 ‘아동’이라는 개념 역시 그러하다. 우리가 현재 자명한 것으로 여기는 이 개념들도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그러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연시하며 무의식적으로 사고하는 ‘어린이’ ‘아동’이라는 개념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일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필립 아리에스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린이관, 즉 어린이기(期)를 특정연령기간으로 구별하고, 특별한 애정과 교육의 대상으

로 어린이를 파악하는 것은 주로 근대서구사회에서 형성된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무게나 속도가 그러하듯이, 인간의 연령은 학문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아리에스 2003, 67). 그에 의하면 유럽에서도 중세에는 어린이는 어른과 비교하여 신체는 작고 능력은 떨어지나 ‘작은 어른’으로 간주되어 특별히 어른과 다르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어린이는 ‘어린이취급’ 당하지 않고 일이나 견습 수업 등에 나가서 일상생활에서 어른과 섞여 어른처럼 일하고 생활했다.

어린이가 점점 무지하고 순진무구한 존재로 간주되어 어른과 명확히 구별되어, 학교 및 가정에 격리되게 되어가는 것은 17-18세기에 걸쳐서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대표한 것이 루소이다. 루소는 『에밀』(1762)에서 어린이와 어른은 다른 존재라고 주장하고, 어린이에게는 이성적 태도로 접해야 하고, 어린이도 이성을 좋아한다고 한 존 로크의 견해를 비판했다. 루소는 ‘어린이’라는 독자의 라이프 스테이지(life stage)를 인정한 것이다.

지역적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한 ‘어린이’ 개념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나바호 인디언은 어린이를 자립한 자로 간주하여 모든 부족행사에 어린이들을 참가시킨다. 어린이는 비호되어야 할 존재도, 중요한 일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 존재로도 생각되지 않는다. 어린이의 말은 어른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존중되고, 교섭 때 어른이 어린이의 대변자가 되는 일도 없다. 이 사회에서는 어린이가 자신의 실패로부터 배울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河原和枝 1998, 5).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어린이’ ‘아동’이라는 개념은 초역사적으로 불변하며 존재해 왔던 것이 아니라, 근대사회가 만들어 낸 극히 근대적인 개념이다. 그렇다면 근대일본에서 이 개념들이 형성되고 정착되는 과정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것은 서양의 그것에 어떻게 영향받았으며, 어떠한 점에서 異同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과제이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서양과의 비교라는 관점이 빈약했으나, 본고는 이

관점을 과감하게 도입해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먼저 1장에서 어린이개념이 탄생했다고 일컬어지는 서양의 경험을 살펴본다. 이것이 근대일본의 어린이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점을 생각할 때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어 2장에서는 전근대 일본에서는 어린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를 주로 메이지의 직전시기인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는 메이지기 어린이관의 또 하나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근대초기인 메이지기에 일본의 어린이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근대와는 어떻게 변화하여 가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다이쇼기(大正期)의 어린이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에 ‘동심’, ‘동화’, ‘동요’의 개념이 정착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의 어린이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II. 서양에서 어린이의 탄생과 어린이관의 변천

1. 17세기의 어린이관의 轉回와 퓨리티니즘

어린이관의 변화는 가족제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진행되었다. 따라서 우선 서양의 가족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주로 영국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450년경에서 1630년경까지 서유럽 상층계층의 가족형태는 대체로 개방적 혈연가족이었다. 가족은 한 단위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그것이 속해있는 공동체와 친족으로부터 곧잘 규제와 개입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라는 독자적인 라이프 스테이지(life stage)가 설정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이다. 어린이들은 家의 안정을 꾀하는 중요한 도구였고, 주로 경제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실제 어린이는 유아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 공동체 간 및 공동체내의 동맹을 성립시키고, 경제적, 혈연적 세력균형을 이루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만약 어린이가 이러한 역할수행을 거부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만행이 육체에 가해져 진압 당하였다(北本正章 1993, 51).

한편 상층계층 이외의 어린이들은 대체로 걸어서 1~2일 정도 걸리는 타인의 집에 가 어른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직업훈련과 교육을 받는다. 이것을 里子制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12세기에 기원하여 공동체내 분업의 발달에 따라 14세기말부터 15세기전반에 걸쳐 널리 행해지기 시작했고(北本正章 1993, 151), 1500년경부터 확산되었다. 어린이들은 7세에 집을 나와 14세까지 일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里子制는 가족수를 조정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린이들은 이 시기에 이어 14세부터 약 7년간 도제생활을 했다. 이후 농촌에서 가내공업이 일반화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되자, 어린이들은 이전보다 오래 생가에 머물게 되었고 이자제는 쇠퇴했다.

이후 가족형태는 공동체개입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나, 가장(부친)의 권위가 강화되어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가족이 중요단위가 되는 한정적 가부장제 핵가족으로 변화한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공동체내에 분업이 발달하여 요면층이 형성되고 농촌매뉴팩처가 확산되는 것을 배경으로 확대가족이 침식당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영국의 경우, 16세기말부터 진행된 퓨리티니즘의 토착화는 가장권위의 강화를 심화시켜 한정적 가부장제 핵가족을 뒷받침했다(北本正章 1993, 52-65). 루터가 만든 가장의 엄격한 이미지는 바로 이때 생겨난 것이다.

1620년에서 1800년경에는 공동체와 친족적 혈연관계를 벗어나 부부와 어린이로 구성되는 폐쇄적 가정내적 핵가족으로 변화한다. 이 형태는 지방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공동체내의 혈연적 유대가 쇠퇴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여, 주로 도시상인층, 전문직층에 많이 보인다. 가부장의 권위는 점점 약해지고, 가족성원간의 평등화, 자유화가 진행된다. 또한 친족과 공동체로부터 이탈함으로써 부부나 부모, 자식간의 애정적(愛情的) 심리가 깊어지고 어린이 고유의 존재에 배려하기 시작한다(北本正章 1993, 193).

이상과 같은 가족제도의 변천사 속에서 어린이라는 존재의 위치는 다양한 양상을 보여 왔는데, 예를 들면 16세기까지 유럽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스워드링(swaddling)이 널리 행해졌다. 스워드링은 생후 4-6개월, 긴 경우 8~10개월 동안, 아이의 머리와 얼굴부분을 제외한 온 몸을 천으로 동여맨 채로 양육하는 관습을 말한다. 이는 부모의 노동을 아이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한편으론 조산부나 유모 등 외부로부터 피부병 등이 아이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 관습은 아이의 심박수를 감소시키고, 우는 소리를 억누르며, 또 오랫동안 배설물을 방치함으로써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근대이후에 보편화된 보행훈련 등의 신체운동과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것을 연습시키는 등의 사고방식은 없었다(北本正章 1993, 171-175). 이 스워드링이라는 관습과 갓 태어난 아이를 바로 수유와 양육을 맡은 유모에게로 보내는 罎子制 등으로 인해 부모와 아이간의 신체적 접촉, 그리고 거기서 싹트는 애정적 감정은 약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 어린이라는 라이프 스테이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에 걸맞는 교육, 배려 등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16세기말에 등장하여 17세기에 풍미한 퓨리터니즘이었다. 퓨리턴의 가정에서는 가장 및 처와 그 자식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심리적·윤리적인 결합이 중시되고, 가족에 대한 애정적인 끈이 강화되는 한편, 가족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냉담한 감정이 형성되었다. 이런 변화는 신흥젠트리, 전문직층, 요먼층 사이에 확산되었다. 16세기말-17세기를 통하여 육아서, 예의범절서가 붐을 이루는데, 이것은 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¹⁾

내면지향형 인간의 전형인 퓨리탄은 양친에 대해서 엄격한 도덕적 의무를 요구했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요구했다.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예의바른 공순을 강제받아, 낭만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무자비할 정도로 수동적인 무권리상태에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리하여 어린이들은 종래의 경제적인 관점으로부터의 지배, 또는 전통적인 가치에 의한 지배에 대신해, 전능한 도덕교사로서의 카리스마적인 부친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즉 이 시기 어린이들은 도덕주의적인 핵가족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아리에스 2003).

어린이라는 라이프 스테이지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학교였다. 그런데 17세기에는 비정상적으로 학교가 발달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어른의 세계로부터 이탈하여 학교에 격리되게 되었다. 교육내용과 학내 상황도 17세기를 계기로 크게 변모했다. 16세기에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소수였는데, 그들은 5세가 되면 허리에 칼을 찬 채로 또는 교실입구에 칼을 둔 채로 수업을 받았다. 또 16세기의 학교는 문자나 산술을 배우기보다 갖가지 복수, 결투의 장이었다. 어린이들은 동물을 학대했고, 이 ‘학교소란’은 일상적인 일이었으며 어른들은 이를 방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은 17세기후반에 학칙으로 금지되었다. 학칙과 규율의 확립으로 ‘학교소란’은 진정기미를 보이지 시작했던 것이다(北本正章 1993, 103).

17세기 말부터 학교화가 진행되면서 어린이들은 더 이상 어른들 속에 섞여서 접촉하는 가운데 직접 인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과 분리되어가고, 세상에 던져지기 전에 일종의 격리 상태하에 두어지게 된다. 이처럼 17세기에는 어린이관의 전회가 일어났다. 아리에스는 어린이에 대한 어른의 감정, 의식이 17세기에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

1) 영어로 쓰여진 어린이양육서의 매뉴얼, 팸플릿의 대량소비시대는 17세기말 이후에 본격화된다. 그 배경에는 종교개혁후의 지적 고양, 교육혁명에 의한 식자율의 상승, 퓨리타니즘의 토착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이 있었다(北本正章 1993, 158).

했다. 그는 초상화에 주목하여 거기에 나타나는 어린이상, 그들의 복장, 놀이도구, 인간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는 17세기이후 사람들의 연령의식이나 발달단계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어, 그 결과 어린이가 어른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어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에 어린이의 초상이 일반화되고, 가족초상화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구도를 보이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때부터 어린이기라는 의식이 출현하여, 어린이는 순진, 귀여움 등으로 어른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안겨주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던 것이다(아리에스 2003, 서문). 자기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16세기에 비해 17세기에는 초상화나 물건에 나이나 날짜를 새기는 관습이 퍼져갔고 이것은 가족에 더 많은 역사적 일체성을 부여하려는 의식과 부합하는 것이었다(아리에스 2003, 65).

17세기에 발생한 어린이관의 전회에 중대한 역할을 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퓨리터니즘이었다. 퓨리턴들은 친모가 아닌 유모가 아이를 기르는 것과 스워드링을 비판했다. 퓨리턴들은 모유양육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런 양육법이고 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北本正章 1993, 178-179).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일찍이 유모의 양육기간이 단축되었고, 17세기에는 폐지되기 시작하여 18세기에는 존 로크의 비판을 거쳐 완전히 폐지되었다. 한편 스워드링의 관습도 퓨리턴들의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이리하여 영국에서는 스워드링과 유모양육의 관습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수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속옷과 모유양육이 점점 보급되었다. 이 새로운 관습들은 처음에는 퓨리턴 가정에만 보급되었으나, 18세기중반을 지나면 중산계급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지금까지는 퓨리턴의 어린이관에 대해 체벌중심의 냉혹하고 엄격한 중세적 어린이관이라는 정설이 수용되어, 그 엄격함의 사회사적 배경과 그 질적 변화가 규명이 되어오지 않았다. 퓨리턴의 어린이관은 모유양육의 강조, 스워드링의 폐지를 주장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

적 모성애의 강조, 가정 내 애정의 심화, 원죄의식의 강화에 의한 심리
별의 채용, 소명관에 기반한 조기 직업인형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
무렵 성모마리아에 안긴 아기예수의 초상화를 실내에 장식하는 관습이
일반화되고 수유하는 성모 마리아상이 유행하며, 마리아신앙이 광범하
게 유포하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北本正章 1993,
204-207).

이처럼 퓨리턴에 의해 가족 내에서 애정적 개인주의가 형성되기 시
작했으나 이것은 퓨리턴의 가부장적 핵가족화와 결합한 것이었다. 그들
은 어른의 권위를 어린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투사하면서, 농밀한 내면
간섭과 밀착적인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그들은 어린이의 구
제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어린이를 덕의 체현자로 만들려고 하는 심리적
경향을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에게는 부모의 일방적이고 농밀
한 이성적 배려는 압박적·침입적인 간섭일 경우가 많았고, 어린이다운
소박하고 자연스런 덕성은 신장되지 않았다. 퓨리턴가정에서는 부모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예의바른 공순이라는 수동적·피조작적 태도를 어
린에게 강제했고, 여성을 가사와 육아의 전담자로 만들었다.

2. 근대적 어린이관의 탄생

이처럼 17세기에 퓨리턴에 의해 어린이관의 전회가 일어나긴 했으
나, 그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 혹은 어린이관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였다. 18세기에 접어들면 비로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한 이미지, 즉 정감 있고 따뜻한 분위기의 가정이라는 이미지가 확산
되기 시작한다. 즉 양육에 대한 퓨리터니즘의 도덕주의적 열광이 수그
러들고, 대신 어린이교육은 근대과학의 실험적 방법에 의해 상대화되었
다. 그 전형적인 책이 의학을 배운 존 로크의 『교육에 관한 고찰』

(1693)이다.

1750년대가 되면 성장하는 중산계급이 궁정에 대신해서 화가들의 스폰서가 되어 가는데, 이 시기이후 각종 회화에서는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놀거나, 독서하거나, 스케치, 낚시, 소풍 등을 즐기는 모습이 자주 묘사되게 된다. 어린이들의 표정도 사랑스럽게 묘사되고, 부모자식과 형제의 애정적인 무드와 친밀감을 표현하는 섬세한 필치가 묘사되기 시작한다(北本正章 1993, 114-116).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어린이를 위한 각종 생활용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어린이용 의자, 식탁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용의 다리긴 의자, 목제보행기, 흔들리는 침대 등 육아용구가 가구의 한 분야를 형성하고 어린이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간다. 그리고 산업혁명 속에서 어린이문화의 상업화가 이뤄진다. 장난감산업이 등장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이 출판된다. 다니엘 데포, 조나단 스위트, 존 뉴베리(1713-1767)등이 등장하고, 이들에 의해 아동문학의 장르가 형성되었다. 1770년대 이후가 되면 30종이상의 교육게임이 가정에 유포되고 슈만(1810-56)의 어린이풍경, 슈베르트(1797-1828)와 브람스(1833-97) 등 낭만파의 자장가 등 어린이를 위한 음악도 등장한다(北本正章 1993, 118-120).

또 이 시대에 주목할 것은 고아원의 등장이다. 카톨릭 국가들에서는 일찍부터 종교단체에 의한 각종 고아원이 경영되었지만, 영국의 공적인 고아원은 18세기 중반경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1741년 런던고아원이 창설되었다.

19세기에는 양육은 엄마의 일로 정착되고, 엄마를 타겟으로 하는 양육지식의 상업화가 성공했다. 186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출판된 양육서는 어린이의 연령단계(life stage)를 확실히 의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육이라는 행위를 고상한 생활양식을 서로 경쟁하는 수단으로 파악해, 모친이 얼마나 고상하고, 현명하고, 즐겁게 어린이를 가르치고 관리하

고, 가정의 도덕적 우아함을 과시하고, 그 권위와 외면적 품위를 높일 것인가라는 점에 주안을 두는 것이었다.

산업혁명시대의 분업의 발달은 이러한 기능분화위에 남녀의 성적역할분업의 고정화와 표준화를 초래하여, 애 키우기는 모친의 중심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모성애로 불리는 심성이 여성에 고유한 보편적이고 본능적인 가치관인 것처럼 강조되었다. 근대의 어린이시대의 자각화와 장기화는 육아의 전업화를 초래하고 여성을 가정 내에 가두어 버렸던 것이다. 즉 근대적 어린이관의 탄생은 동시에 가사와 육아를 여성이 전담하고, 그에 따라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도 초래했던 것이다.

III. 에도시대의 어린이와 어린이관

일본어에서 어린이를 가리키는 말로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일본서기』, 『고사기』에 나오는 子(子)라는 말이다. 그후 코도모, 미도리고, 와쿠고, 찌고, 아게마키, 가키, 와라와, 코조오, 쇼오넨, 쇼오죠등의 말이 사용되었지만, 이윽고 에도시대에 들어와 코도모라는 말이 頻用되기 시작한다(森山茂樹·中江和惠 2002, 8-12).

에도시대 성립을 전후한 16~17세기는 有配偶率이 크게 상승한 혼인혁명의 시대였다. 17세기초두만 해도 직계친족의 유배우율은 높았으나 방계친족 및 후계자가 아닌 자는 혼인하는 비율이 낮았다. 계닌(下人)등 노예가족의 2/3는 평생 독신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信濃湯舟澤村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1675년 전 세대의 1/3이 계닌이고, 계닌의 인구비율은 13%였던 것이, 1771년에는 각각 5%, 7%로 감소했다. 이것은 예속가족의 자립과 방계친족의 분가가 활발하

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에 의해 18세기에는 인구의 대부분이 결혼할 수 있었다(森山茂樹·中江和惠 2002, 164).

이에 따라 인구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농가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도시대에는 유아살해인 마비끼(間引)와 낙태가 널리 행해졌다. 마비끼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특히 쌍둥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살해되기 일췌였다. 이 시대에는 둘째, 셋째를 키우면 “개와 같은 짓이다(犬のようだ)”라고 조롱의 대상이 되곤 할 정도였다(森山茂樹·中江和惠 2002, 163-166).

이 시대에는 “7세까지는 하늘에 달린 일(神の内)”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아·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²⁾ 찌뜨께(乳付け)라는 풍습이 있어 애를 낳으면 일족중이나 이웃 중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자손이 번창한 부인으로 젓이 잘 나오는 사람을 택해 아이를 보내어 양육을 맡겼다. 서양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里子制가 광범하게 존재했던 것이다. 이 풍습은 지역에 따라서는 20세기 초까지 잔존해 있었다(森山茂樹·中江和惠 2002, 176). 영국의 퓨리턴과 마찬가지로 에도시대의 학자 香月牛山은 그 저서 『小兒必用養育草』에서 이 풍습을 일단 인정은 하면서도 모유수유를 권장했다. 그러나 그 주장의 강도는 퓨리턴에 비하면 훨씬 떨어지는 것이었고, 모유수유가 금방 확산된 것 같지는

2) 메이지중기의 유아 사망율은 15%, 메이지말에서 다이쇼기에는 상승하여 1918년 18.97%, 그 후 저하하여 1932년에는 11.8%였다. 대전후인 48년에는 6.17%, 1957년 이후에는 4.0% 이하로까지 떨어졌다. 그 이후 乳幼兒사망률(5세미만)은 1960년에는 4.0%, 1998년에는 0.4%로 스웨덴,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항생물질개발, 예방접종, 영양법 개선 등이 크게 기여하였다(森山茂樹·中江和惠 2002, 254-257). 불과 100여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진 유아사망률의 감소는 어린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참고로 일본인의 평균수명의 변화를 살펴보면 에도시대초기(17세기)에는 20대 후반에서 30세, 말기에는 40세 정도였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이 50세를 넘는 것은 2차대전 후인 1947년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1년 8월 현재 여성이 82.62세, 남성이 77.64세를 기록하고 있다(森山茂樹·中江和惠 2002, 243-244). 이와 같은 통계수치는 인간의 평균수명에 근대가, 특히 20세기 후반이 얼마나 획기적인 시기인가를 말해준다.

않다.

일본에서는 서양의 스와들링 같은 풍습은 없었고 대신 애를 등에 업으며, 애를 혼자 놔두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때부터 스와들링 풍습을 익히 알고 있던 서양인은 막말에 일본에 와서 이같은 상황을 보고 일본은 어린이의 천국이고 어린이가 매우 사랑받는다고 감탄하기도 했다고 한다(森山茂樹·中江和惠 2002, 222-223).

한편 육아에는 남자들도 많이 참여했다. 무사가정의 경우, 육아와 교육은 바깥사람의 일로 간주되어 남편의 영향력이 강했다. 막말에 주일공사를 지냈던 영국인 울코크의 기록에 의하면, 서민사이에서는 남자들이 아이를 돌보고, 애들에 관한 이야기가 남자들 사이의 주요화제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육아와 아이교육이 전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된 것은 일본에서도 역시 근대이후의 일로 보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에도시대의 가족은 결코 사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즉 공공영역과 가내영역의 분리가 확실히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小山靜子 2002, 251-252).

그렇다면 에도시대 어린이들의 생활은 어땠을까. 초오닌(町人)의 예를 들어보면, 초오닌의 자식들은 유아기에는 어머니 유모, 또는 애보기소녀의 보살핌을 받다가 5, 6세가 되면 간단한 글자를 배우러 다니게 된다. 그리고 오후에는 놀다가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는다. 그러나 7세부터, 늦어도 12, 13세부터는 장남은 부모의 일을, 차남이하는 남의 가계의 점원 등으로 일하러 집을 나오게 된다(丁椎奉公). 소녀들도 무사 집안의 잡일을 하거나(屋敷奉公), 애보기일(子守奉公)을 하러 집을 떠나게 된다. 전근대의 서양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어린이들은 7세 이후가 되면 어른과 마찬가지로 힘든 일을 감당하며 어른들의 세계와 접촉하며, 사회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근대인에게 익숙한 어린이기, 청소년기라는 라이프 스테이지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며, 근대인이 갖고 있는 천진난만, 순진무구라는 어린이개념도 생

겨나기가 힘들었을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에도시대에는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에 큰 변화가 보인다. 서양에서 16세기말에서 17세기 초에 걸쳐 육아서와 예의범절서가 다수 등장하는데 그보다 조금 늦게 에도시대에도 17세기말에 육아서가 출현한다. 즉 유학자 貝原益軒은 17세기 후반에 『家訓』을 지어 서, 문예, 무예 등의 교육과정을 연령단계별로 기록하였다. 이어 益軒은 18세기 초에 자신의 교육론을 집대성한 『和俗童子訓』을 쓰는데 그 속에는 여아의 육아교육서인 『女大學』도 들어있다. 이 책은 일본교육학의 원조가 되는 것으로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존 로크의 『교육에 관한 고찰』(1693)에 비견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책은 메이지기까지도 수신용 참고서로 읽혀졌다. 이밖에도 이 시기에는 많은 육아교육서들이 쓰여지는데, ‘三分の飢えと寒’, ‘七分の食’, ‘三分の寒’을 강조하여 서양의 퓨리티니즘과 같이 엄격한 어린이교육을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17세기 후반 의사 이나오 코오겐(稻生恒軒)은 産前産後에 주의할 점을 쓴 『이나고초』를 썼다. 18세기 초인 1703년에는 익헌에게 유학을 배운 의사인 카즈끼 고잔(香月牛山)이 어린이 양육방법과 병, 치료, 교육에 대한 총합적인 책 『小兒必用養育草』를 썼는데 이는 일본 최초의 체계적인 육아서로 평가할 수 있다. 19세기에 들어오면 데지마토양(手島堵庵) 문하의 와끼사까 기도오(脇坂義堂)가 『撫育草』를 썼다. 이 시기는 서민의 부모들까지도 어린이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문자를 가르치고, 유교를 근간으로 도덕관을 가르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森山茂樹·中江和惠 2002, 152-170).

에도시대의 어린이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해야하는 것이 테라꼬야(寺子屋)라는 평민어린이를 위한 교육기관의 보급이다. 17세기가 서양에서는 학교가 급증한 시기이며 예의범절을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이 자리 잡아가는 시기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으나, 테라꼬야는 18세기후반에

급증하기 시작하여 막말기에 이르면 농촌·어촌·산촌에까지 보급되게 된다(森山茂樹·中江和惠 2002, 210). 이 시기에 藩校, 郷校등 주로 무사자제를 위한 교육기관도 급증하는 것과 아울러 생각해보면, 이 시기에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기관을 접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명치유신이후 근대학제가 시행되기 이전의 막말유신기에 일본남아의 40% 이상, 여아의 10% 정도가 가정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이는 전근대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森山茂樹·中江和惠 2002, 153).

데라코야에서는 주로 습자(習字)를 배웠으나 상업도시 오사카에서는 무사, 정인의 자식이나 남녀 구별 없이 습자 뿐 아니라 구구단도 배웠다. 수업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정도였고, 아침7시반경에 와서 오후 2시반경까지 수업을 받았다 휴일은 1년에 50일 정도였다. 무사의 자식들은 습자학교 이후에도 다른 塾에 가든가, 집에서 교육을 더 받았다. 남자어린이는 주로 『三字經』, 『孝經』, 『實語教』, 여자어린이는 『女大學』, 『百人一首』등을 주로 배웠다. 특히 평민교육에 힘을 기울였던 石門心學의 테지마토앙(手島堵庵)은 서민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7세부터 15세까지의 남자와 7세부터 12세까지의 여자아이를 모아 일상생활의 도덕을 가르쳤다. 이처럼 에도 중기 이후의 어린이는 교육에 의해 자라고, 일상생활, 놀이에도 지배적인 도덕적 규범의식을 갖고 있었다.

어린이의 연령단계에 대한 관심의 발흥과 어린이교육의 보급에 따라, 18세기전반에는 아까홍(赤本)이라는 그림책이 많이 출판되었는데, 이 책들은 서민의 아이들도 간단히 살수 있는 값싼 어린이잡지 같은 것이었다.³⁾ 18세기 후반에는 쿠로홍(黒本)과 아오홍(靑本)이 출현하기도 했으나, 1775년 戀川春町の 『金々先生榮花の夢』이 황색표지를 한 것

3) 대표적인 것으로는 『むちな(狸)の敵討』, 『お化の四季あそび』, 『さるかに合戦』, 『桃太郎昔話』, 『したきれ雀』, 『花さきちち老樂の榮華』 등이 있다.

을 계기로 이후 黃表紙라고 줄곧 불려졌다. 이러한 어린이그림책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2천 종 이상 출판되었다. 이런 것들은 동시기의 서양이나 명치20년대에 일본에서 출현한 어린이를 위한 출판업의 선구라고 할만한 것이나, 그 규모나 영향력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었다. 한편 동시대 서양에서 어린이를 위한 각종 가구, 음악, 책, 장난감, 유아용품 등이 탄생한 데 비해 에도시대에는 장지로 만든 목만 있는 인형인 가뎨꾸비(合点首)라는 완구가 탄생한 정도에 그쳤다(森山茂樹·中江和惠 2002, 202). 또한 에도시대에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는 습관은 없었고 애를 위한 특별한 형태의 옷도 없었다. 또한 가옥규모와 상관없이 애를 위한 방은 없었다(森山茂樹·中江和惠 2002, 181-191).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어린이의 라이프 스테이지가 인식되고, 그들을 위한, 또는 겨냥한 산업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역시 명치시대에 들어서이다.

IV. 근대일본의 어린이관의 형성과 '童心'의 탄생

개국에서 유신기까지는 어린이 인구수가 급증한 시기였다. 메이지 정부는 부국강병을 위해 '낳아라, 늘려라'는 슬로건 하에 인구증가정책을 취했다. 이에 따라 마비끼가 금지되었고, 多産이 장려되었다. 또 1880년에 제정된 형법에서 墮胎罪를 규정하여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 산아 제한론은 위협사상으로 여겨졌다(森山茂樹·中江和惠 2002, 243-253).⁴⁾

메이지유신 이후 어린이의 생활과 어린이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4) 일본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을 취하게 된 것은 2차대전직후 식량부족이 심각할 때였다.

것은 근대적 학제의 실시였다.⁵⁾ 따라서 어린이를 가리키는 용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겨 학교단계에 따라 학생을 가리키는 용어가 구별되어 사용되었다. 1872년의 학제령에서는 소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생을 세이포(生徒)라고 일괄적으로 호칭했으나, 1889년 교육령에서는 소학생만은 지도오(兒童)라고 구분하였고, 유치원학생은 따로 유우지(幼兒)라고 하였다. 또한 1946년 제국대학 官制에서 대학생을 가꾸세이(學生)라고 구분함으로써 현재 사용되는 유아-아동-생도-학생의 구분이 확립되었다(森山茂樹·中江和惠 2002, 19-20).

메이지기 이후 어린이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어린이를 미래에 일본이라는 국민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고, 또 하나는 어린이를 어른들의 속물적인 세계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순진무구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다. 명치 중기까지는 전자의 시각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나, 명치 말기에서 다이쇼기에 걸쳐 서양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후자의 시각이 확산되어 이후 상호긴장하면서 병립하게 된다.

사실 어린이를 곧바로 국가의 목표를 미래에 실현할 존재로 연결시키는 발상은 전근대에서는 낯선 것이었다. 어린이를 부모, 가족, 친족 또는 촌락공동체의 미래와 연결시키기는 했어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시키는 발상은 드물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국가사이에 아무런 매개항 없이 이 양자가 직접 대면하는 체제가 전제되어야한다. 이런 체제를 만들어낸 것이 1871년에 만들어진 호적제도(壬申戶籍)이다. 에도시대에도 人別改帳·宗門改帳制度가 있어 주민파악을 시도했으나, 그것이 곧 막부나 번이 가족을 직접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촌락정책은 村請制라고 하여, 모든 행정

5) 1891년에 취학률이 50%를 넘어섰고, 1900년경에는 90%에 이르게 된다(河原和枝 1998, 57).

대상의 최소단위는 촌락이었지, 가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배 권력은 개개의 가족을 직접 파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1871년의 호적제도는 황족이외에는 ‘四民同一’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호적이 만들어졌다. 人別改帳·宗門改帳이 지역이나 신분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갖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것은 국민통일적인 호적이었던 것이고, 그 결과 호적제도는 봉건적인 신분제도를 파괴하고 ‘국민’ 개념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小山靜子 2002, 246-248).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가 ‘戶’라는 이름의 ‘家’를 매개로 하여 국민을 파악한 것, 즉 모든 국민이 戶主를 중심으로 한 ‘戶’에 편제된 것은 국가와 家가 촌락공동체, 친족공동체 등의 매개 없이 직접 대면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여 가족은 공동체로부터 자율성을 높이고, 국가와 대치하고 국가로부터 직접 파악되는 존재가 되었다(小山靜子 2002, 251). 이리하여 가족은 국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되고, 국가의 목표에 봉사하는 사회의 최소단위로서의 기능을 띠어지게 되었고, 그 속의 어린이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이 형성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메이지기에 들어서 학제의 실시, 가정과 국가의 대면 등으로 인해 어린이라는 라이프 스테이지가 분명히 인식되게 되고, 어른과는 다른 존재로서의 어린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근대적 어린이관이 형성되는 데에는 이런 요인이외에도 문학과 아동저널리즘의 영향이 일본에서는 매우 컸다. 이하에서는 이 측면을 상세히 검토하면서, 근대적 어린이관이 형성,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메이지기와 다이쇼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일본에서 최초로 어린이를 위해 창작되었던 것은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의 『코가네마루』(1891년 소년문학총서의 제1편)이다. 그 내용은 전통적인 원수에 대한 복수이야기(仇討)였는데, 이 작품은 『近江聖人』과 더불어 4, 5만 부나 팔렸다(河原和枝 1998, 16). 그런데 소년문학총서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얽히고 설킨 세상에 관한 지식으로

부터 어린이를 떼어내어 별도로 취급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엿보인다. 예를 들면 오자키 코요오(尾崎紅葉)의 『二人棕助』는 안데르센의 『작은 니콜라우스, 큰 니콜라우스』를 번안한 작품인데, 상당히 음산하고 처참한 줄거리이다. 여기에 더해 코요오는 ‘선인이라도 우둔하면 망하고, 악인이면서도 영리한 자는 영달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 공감이 가면 배우시라, 누구라도’ 라는 원작에 없는 말을 첨언할 정도였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작품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최초의 ‘소년문학’은 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어른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서 어린이를 파악하는 관점이나 감성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河原和枝 1998, 30). 이것은 메이지기에 들어와서도, 비록 어린이라는 라이프 스테이지에 대한 인식은 강화되기 시작했으나,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동심’을 갖고 있는 존재로, 어른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존재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개념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메이지중기로 접어들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잡지가 속속 발간되기 시작한다. 아동저널리즘이 탄생한 것이다. 1888년의 『少年園』, 1889년 『小國民』, 1890년 『少年文武』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특히 1895년 창간된 『소년세계』에서는 오토기바나시(おとぎ話), 모험소설, 입지소설, 소녀소설 등 아동문학의 서브장르가 탄생했다.

메이지기의 이러한 아동저널리즘과 아동문학을 통해 나타난 어린이관은 어린이를 입신출세를 위하여 정진해야 할 존재, 국가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해야하는 존재라는 시각에 서서 이들을 그런 방향으로 교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이쇼기 무렵이 되면 이러한 어린이관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즉 동심이나 동화는 세파에 지치고 순수성을 잃어버린 어른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의 세계가 되고, 어린이를 특별한 존재로 보기 시작한다. 이런 어린이관의 변화와 함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작품의 명칭에도 변화가 생겼다. 메이지중기

에 처음으로 나타난 어린이 대상의 서물은 당시 ‘오토기바나시(おとぎ話)’라고 불리웠다.⁶⁾ 그러나 다이쇼기 중반부터는 이를 대신에 ‘동화’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고, 쇼오와기에는 ‘아동문학’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다(河原和枝 1998, 14-15). 이와 함께, ‘이에(家)’ 대신 ‘카테이(家庭)’가 신중간층의 가정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쓰이기 시작한다(小山靜子 2002, 244). 즉, ‘이에’는 전통적인 이에제도, 또는 1898년 제정된 메이지민법에서 규정한 이에제도에 기반한 가부장적인 위계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이라는 뉘앙스가 강한 데 비해, ‘카테이’는 교양있고 자애로운 부모와 그들에게 사랑받는 어린이로 구성되는 평등하고 애정적인 공간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동’은 메이지 말기 오가와 미메이(小川未明)를 비롯한 문학자들의 꿈으로서 또는 퇴행적 공상으로서 발견되었다. 관념적인 찬미대상으로서의 ‘아동’이 먼저 태어나고 이후에 현실의 어린이, 진정한 어린이가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어린이관의 전회에는 서양의 낭만주의의 영향이 매우 컸다. 영국시인 워즈워드는 시를 통해 어른이 되면 잃어버리는 어린이시대의 기쁨과 찬란함을 노래했다. 그를 이어받아 國木田獨步는 無垢 그 자체를 상징하는 소년을 만들어내어 세속에서 해방된 영원의 생명을 서정적으로 묘사했다. 메이지가 끝난 시대의 지식인들은 어린이의 無垢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줄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무구한 어린이들을 동화나 동요 속에 계속 등장시킨다(河原和枝 1998, 63-65). 이에 따라 메이지 20년대까지는 전술한 오자키 코요오의 경우처럼, 어른세계의 처세술이나 남녀관계가 아동문학에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메이지 30년대 이후 다이쇼기로 넘어가면서, 이런 내용은 거의 사라진다(河原和枝 1998, 170).

다이쇼기를 전후로 한 ‘동심’의 탄생과 새로운 어린이관의 형성에

6) 이 명칭을 만든 이는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이다.

는 서양낭만주의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영국문학에서도 18세기말까지는 어린이가 문학의 중요한 관심대상은 아니었다. 중요한 테마로 삼은 것은 워즈워드와 블레이크 등 낭만주의시인이었는데, 블레이크의 “굴뚝 청소하는 소년”, 워즈워드의 “불멸의 송가”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린이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후 19세기가 되면 디킨스나 킹슬리 등이 어린이는 사회의 경험의 중압에 대한 인간의 무구한 혼의 심볼로 묘사하게 된다. 즉 어린이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발전을 계속하는 사회에 대한 예술가의 불만의 심볼로 등장했던 것이다. 다이쇼기의 작가들은 이러한 사조를 수용하여 어린이관을 형성해갔던 것이다. 예를 들어 北原白秋는 학교교육을 비판하면서 루소의 언어를 사용했고, 또한 ‘어린이는 성인의 아버지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워즈워드의 시의 한 구절이었다(河原和枝 1998, 159-160).

‘오토기바나시’에서 ‘동화’로의 전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1918년 鈴木三重吉이 창간한 잡지 『아카이토리(赤い鳥)』이다. 그는 이와야 사자나미(암곡소파)의 희작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오토기바나시’나 당시 범람하고 있는 어린이대상의 통속소설, 관제 창가 등을 부정하고 예술로서의 진가가 있는 동화나 동요를 만들 것을 제창했다. 『아카이토리』 창간의 취지를 밝힌 문장을 살펴보자.

현재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어린이물 중 대부분은 그 속악한 표지가 다면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너무나도 졸렬을 극한 것들이다. 이런 것이 어린이의 眞純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렵다.

서양인과 달리, 우리 일본인은 슬프게도 아직까지 거의 어린이를 위한 純麗한 독서물을 제공하는 자랑할만한 진정한 예술가가 없다.

『아카이토리』는 세속적인 천박한 어린이물을 배제하고, 어린이의 純性

을 보전, 개발시키기 위해, 당대 제일류의 예술가의 진지한 노력을 모아, 어린 어린이를 위한 창작가의 출현을 맞이하는 일대획기적 운동의 선구이다. — 『아카이토리』 창간호(1918).

『아카이토리』의 필진에는 사자나미 문하의 작가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인맥과 단절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어린이들의 읽을거리가 공리와 센세이셔널한 자극과 이상한 哀傷으로 가득찬 저질스런 것이었다고 비난하였다(河原和枝 1998, 68-69). 『아카이토리』는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1920년에는 3만 부 정도의 판매를 기록했다. 그 성공을 배경으로 1919년에는 『오토기노 세카이』, 『카네노 후네』, 『코도모잡지』, 1920년에는 『동화』, 『오하나시』 등이 발간되는 등 아동잡지가 100종 정도에 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아카이토리』의 독자들은 주로 누구였을까. 1921년에 실시된 한 독자조사에 따르면 당시 일본 어린이의 독서량은 농촌에서는 아동1인당 0.35권, 도시에서는 1.47권이였다. 『아카이토리』의 경우, 열독랭킹이 동경의 소학교에서 남자는 12위, 여자는 10위에 들어가나, 치바(千葉)의 소학교에서는 254명 중 한 명도 이 잡지를 읽고 있지 않았다. 즉, 『아카이토리』의 독자는 대부분 도시의 자녀들이었던 것이다. 즉 도시중간계층의 어린이들, 또는 지방의 명사의 어린이들, 관리, 교육관계자, 은행원, 회사원, 변호사, 의사 등 화이트칼라의 가정이다. 이 직업군은 메이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1920년경에는 전 국민의 7-8%를 점했다.⁷⁾

메이지기에 서양문화는 매우 신기한 것이었고, 이를 수용하고 향유한 것은 특권적인 일부계층 뿐이었다. 다이쇼기에 와서 白晝波가 대표하듯이 이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문화생활’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것처럼, 서양적인 취미를 수용한 합리적인 문화생활이야말로 그들이

7) 이 무렵 농업생산액과 공업생산액의 비중은 역전되어, 경공업을 중심으로한 공업생산액이 전 생산의 56.5%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동경하고 지향했던 생활태도였다. 교외에 洋間이 있는 문화주택에 살면서 ‘오늘은 帝劇(제국극장), 내일은 三越’라는 三越 백화점의 케치프레이즈처럼 우아한 소비생활이 동경의 대상이었다. 『아카이토리』는 표지만 봐도 서양적인 냄새와 고상함을 풍기면서 이들에게 받아들여졌는데, 이것은 어린이들 이전에 부모의 취미에 합치했던 것이다(河原和枝 1998, 82-86).

그렇다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카이토리』의 어린이관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것은 대체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착한 아이, 즉 선량함의 이미지이다. 즉 타인에 친절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노력하는 어린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어린이.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아카이토리』가 칭송하는 어린이상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카이토리』가 추구한 것은 유교적 모럴이 아니라 서구적인 시민사회형의 모럴이었다. 둘째, 연약한 아이, 즉 약함의 이미지이다. 그 작품들 속에서는 정신적으로 약한 아이, 병든 아이, 가난하고 학대당하는 아이 등, 연약한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많다. 이것은センチ멘털리즘으로 연결되어 다이쇼기 특유의 感傷의 시대를 낳았다. 예를 들면, 오가와 미메이(小川未明)는 순진한 감정의 번득임으로부터 덧없는 동경과 인생의 비애, 낭만주의적 미의 세계를 묘사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고, 나아가 자연적인 양심의 裁斷에 의해, 고통 받는 약한 존재가정을 실현되는 이상을 표현하기도 했다. 셋째, 순수한 어린이, 즉 순수함의 이미지이다. 특히 鈴木三重吉은 眞純, 純性, 純麗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 北原白秋는 “어린이는 자연계의 모든 것과 논다. 놀라면서 논다. 그러므로 그들 주위의 모든 것이 함께 환성을 지른다....”(河原和枝 1998, 127-137)라며 어린이의 순수함을 찬미했다. 사리사욕, 이해타산과 무관한 비공리성은 순수함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들은 유도생마의 『大將の子と巡査の子』(1918. 10)에서 보이는

것처럼, 평화와 휴머니즘을 강조하고, 어린이들을 세계시민, 또는 새로운 평등한 질서의 체현자로 여기는 자세를 보였다. 이들은 스토리의 극적인 전개보다도 주인공의 내면, 감정의 幾微를 표현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다이쇼 교양주의의 영향이 엿보인다(河原和枝 1998, 100-127). 그리고 이들에 의해 ‘동심’ ‘동화’ ‘동요’ 등의 말이 탄생하고 유포된다. 그러나 동화작가들의 눈에 현실의 어린이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어린이의 맘을 잃지 않고 있는 모든 인류, 인류가 갖고 있는 영원한 어린이라는 이념적·추상적인 존재였다(河原和枝 1998, 153).

이 시대의 작가들이 어린이이미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표현을 했던 이유는 成功熱의 시대에 대한 반발, 불안, 위축이었다. 즉 이 작가들은 ‘동심’ 속에서, 성공과 입신출세라는 우성가치에 대한 부차가치로서의 기능을 발견했던 것이다. 즉 우성가치에 대립하는 ‘동심’ 속에서 그들은 선량함, 순수함, 나아가 약함이나 무력함까지도 긍정해주고, 사회생활에서 오는 실의나 패배를 위로해주며 정당화해주고, 나아가서는 대항가치를 찾아내어 가치의 다원화를 보증받았던 것이다(河原和枝 1998, 192-196).

이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은 이 ‘동심주의’가 현실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전후의 문학도 동심주의문학은 어른이 향수적으로 갖는 동심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부재한 문학이라고 야유했다.

이러한 ‘동심주의’의 탄생과는 대조적으로 『소년구락부』⁸⁾는 어린이들에게 입신영웅주의⁹⁾를 선전했다. 여기서는 소년들의 이상으로서

8) 감당사의 전신인 대일본용변회가 1914년 창간한 이 잡지는 1935년 전후에는 70만~75만 부까지 팔렸다.

9) 사회학자 見田宗介는 입신출세주의는 근대일본을 주도한 정신이고, 서구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에 기능적으로 대응한다고 주장했다.

‘위대한 사람’이 설정되었다. ‘동심주의’에서의 어린이와는 달리, 이들은 어린이를 비호받을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독립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소년들에 확고한 관념을 제시했다. 이런 유교적인 도덕을 배경으로 하는 입신출세주의, 영웅주의는 결국 군국주의로 귀결되고 말았던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어린이관은 태고적부터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근대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인류사회는 어린이라는 특정한 라이프 스테이지(life stage)를 의식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어린이는 어른과 그리 크게 구별되지 않은 채로, 노동과 사회생활의 주체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어린이는 인생 가운데 특정한 단계(life stage)이고, 어른의 세계로부터 격리되어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존재, 어른들이 이미 잃어버린 순진무구한 ‘동심’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현재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린이관은 근대의 특정시기에 형성된 역사적인 개념이다. 우선 학교제도의 형성과 보급에 의해 어린이는 일정기간 동안 학교에 수용되어 사회생활이나 노동으로부터 격리되게 되면서 어린이라는 특정한 연령단계가 분명히 설정되게 되었고, 이어 낭만주의 사조의 영향으로 어린이는 혼탁한 어른들의 세계와는 구별되는 순진무구한 ‘동심’을 보유한 존재로 인식되게 되었던 것이다.

서양의 경우 퓨리탄들이 유모 수유, 스와들링 등 중세의 어린이에 대한 관습을 비판하면서, 어린이관에 전회를 가져왔으나 그것이 현재의 어린이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어린이를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여 엄격한 교육과 규율의 주입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17세기에 학교의 시대가 열리고 어린이라는 라이프 스테이지가 분명하게 인식되고, 이어 낭만주의사조가 등장하면서 어린이는 순진무구한 존재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어린이관이 마침내 형성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장난감, 유모차, 어린이 잡지등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산업들이 번성하고, 음악과 문학 등 예술분야에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작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에도시대의 일본에서도 서양과 비슷한 시기인 17, 18세기에 육아서, 예의범절서가 다수 출판되고, 데라꼬야(寺子屋) 등 교육기관에 다니는 어린이수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나타내는 조짐들이 보이기는 했으나, 본격적으로 어린이라는 연령단계를 의식하고 새로운 어린이관이 형성되는 것은 메이지 이후의 일이었다. 메이지시대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잡지나 문학작품이 창간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내용은 어린이를 순진무구한 동심 속의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본을 이끌어 갈 존재로 파악하고 어른과 구별하려는 의식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메이지말기에서 다이쇼기에 이르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이 시기에 이야기풍의 아동문학을 비판하고, 예술작품으로서의 ‘동화’를 지향하는 많은 작가들은 어린이를 어른의 세계와는 구별되고, 어른들이 이상으로 삼아야하는 순진무구한 ‘동심’의 세계로 파악하였다. 즉, 이 시기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린이관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한편 식민지조선에서도 이 시기에 유사한 어린이관이 형성되는데,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방정환이다. 그는 ‘어린이’라는 말을 창조하면서, 근대적 어린이관을 식민지조선에 형성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호인 소파(小波)가 메이지 아동문학의 거봉인 이외야 사자나미(巖谷小波)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는 일본에서 진 행되고 있는 변화에 영향받은 바가 적지 않았다.

지금 일본사회는 소자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우리가 自明의 전제로 여기고 있는 개념들을 상대화하기 위한 역사학적인 접근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즉 어린이란, 노인이란 무엇인가. 나아가 가족이란, 가족제도란 근본적으로 변화될 여지는 없는가. 학생이란, 학교란 무엇인가. 인간은 반드시 십수년 간을 사회생활과 노동에서 격리된 채 학교 안에 있어야만 하는가. 포스트모던이나 탈근대가 운위되고 있는 요즘 근대가 생성해낸 이런 개념, 제도들에 대한 재검토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필립 아리에스 저. 문지영 역. 2003. 『아동의 탄생』. 서울: 새물결.
- 河原和枝. 1998. 『子ども觀の近代—「赤い鳥」と「童心」の理想』. 東京: 中央公論社.
- 北本正章. 1993. 『子ども觀の社會史』. 東京: 新曜社.
- 森山茂樹·中江和恵. 2002. 『日本子ども史』. 東京: 平凡社.
- 小山靜子. 2002. “家族の近代—明治初期における家族の変容.” 『家族と社會』. 東京: 吉川弘文館.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View on Child in Modern Japan

PARK Hun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Unlike our common sense, the concept of the 'innocent child', 'childish innocent' had been historically made up. In Europe, children who had been viewed as 'the little adults' so far, began to be the innocent being and separated into school and home from 17C to 18C. Now, the life stage of the childhood was newly installed and the artists and manufacturers began to create fairy tales, lullabies and toys, targetting to the new market of the children.

With the establishment of Meiji government in later 19C, the life stage of the childhood was clearly recognized by the introduction of primary school system and the confrontation of the state and the home without any mediator such as local societies or feudal lords as the past. By the Meiji era, many Japanese considered the children as the resources bearing the state of Japan on their shoulders in the future. In Taisho era, however, the children were considered innocent beings sharply distinguished from the adults.

In Japan, the journalism for children played the crucial role to create the new view of the children, and Akaitori, or the red bird was a key journal. We could see the birth of the term of 'dowa' or a fairy tale and 'doshin' or a mind of a child, and the concept of the 'innocent child', 'childish innocent' was spreaded.

Key Words : child, school, education, puritan, Okawa Mimei